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읍 신평리 신평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강태숙(남, 1937년생, 성산읍 신평리)

- 줄거리: 정동모자의 줄을 걸으러 갔다가 묶어서 내려올 끈이 없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정동모자의 갓(정당벌립)을 뜯어서 그 줄로 묶어서 내려왔다고 한다.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우스개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아주 옛날옛 말인데. 드룻밭데, 아, 드룻밭데 아니고, 꼭이라는 거는, 칩 줄 잇잖아 아이, 막 긴 거. 농기구로, 그걸 만들어서 사용헤여. 허나 분이, 그, 산에 가서 칩 줄을 막 걸어가지고 왔는데, 그 뒷날은 친구가, 아, 나도 가겠다고 허니, 뭘 했느냐 허문, 그, 칩 줄 걸으레 간 게 아니고, 버선, 정동으로 만든 갓. 갓 곱아 갓이엔 허는가, 그걸 만드는 정동줄을 걸으레 갔다 말이야.

정동줄을 걸으레 간에, 영 헛는데, 모자는 정동줄로 만든 모자를 씌 갓어. 경 현 데 할아버지가, 아, 그걸, 다 헤난, 지영 가젠 허연 보니 끄나풀이 엇단 말이야. 아 하, 그래서 이젠, 정동줄을 풀어가지고, 이걸로 베 해서 지고 내려가문 뉘겟다.

그걸 풀언 지영 집에 내려왔어. 내려완, 동네 완, 친구들안티 뭐라고 허니, 어, 나는 오늘 드룻밭디 간 정동줄 걸언에 베엿는데, 베가 엇이니까 정동 모자, 그걸 끄나풀로 헤연 집에 왔다고 허니까.

객체 사람덜이 오죽 웃을 거라게. 아니, 그 정동줄 걸은 걸로, 지고 와도 뉘는데, 그 모자를 뜯어가지고 헛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.

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문 할 수 엇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, 그렇게 뉘는 거.

- 핵심어 : 정동줄, 칩, 모자, 끄나풀, 베, 정동모자, 줄, 사람, 끈, 갓